



파우스

낙농가에 필요한 최적화된 제품 공급 주력

“낙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제품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남들이 미처 손쓰지 못했던 부분, 낙농가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30대의 젊은 패기로 파우스(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대표는 매년 전세계 선진국 박람회를 돌며 신모델, 신기술, 신제품을 찾아다닌다. 그는 국내 농가에 가장 필요하고 최적화된 발정탐지시스템, 유두세척기(F60), 무주입진공펌프 등 선진국형 제품을 발굴하면서 낙농업의 블루오션을 향한 작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F60-유두세척기, 착유시간 단축 및 편리성에 농가도 놀라

파우스의 주력상품인 유두세척기는 착유 전 세척과 살균, 건조, 마사지까지 유두 네 꼭지(한 꼭지 당 5~6초)를 20~30초면 마무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착유우 50두 기준 착유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 준다. 물과 건조수건을 이용해 세척하던 시간이 1분 정도라면 F60-유두세척기는 그 절반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사용법도 간단하다. 유두에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총 3개의 솔 중에 2개의 솔이 젖꼭지 외부와 유방을 세척하는 동안 아래쪽 솔은 끝 부분을 세척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일정한 힘으로 유두에 전달돼 세척과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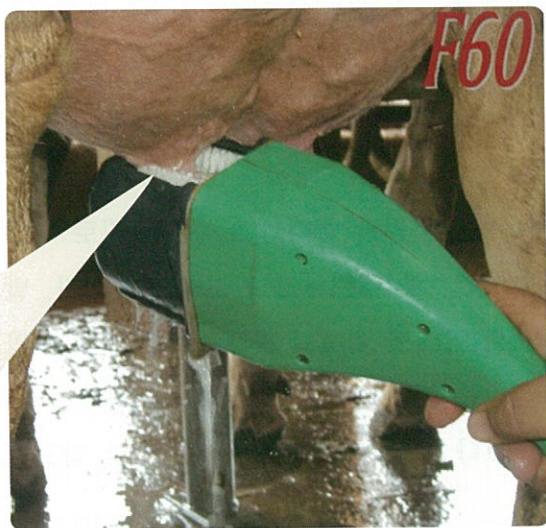
이재용 대표는 처음 유두세척기를 들여왔을 때만 해도, 이 제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농가들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일단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본 후의 호응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F-60 유두 세척기는 총 3개 브러쉬로 구성되어 착유 전 세척, 살균, 건조, 마사지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농가들은 ‘이게 되겠어? 그냥 손으로 닦으면 되지’라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본 뒤에는 대부분 ‘이런 제품을 왜 이제 설치해 주었냐’며 오히려 우리를 타박할 정도였어요. 특히 여성 낙농인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그분들 덕분에 입소문을 점점 타기 시작하면서, 한번 써보신 분들이 이제는 유두세척기 없이는 착유를 못 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파우스의 유두세척기는 사용이 편리한 동시에 가벼워 초보자는 물론 여성낙농인이나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좋다. 특히 세척하는 동안에 적당한 수압과 일정한 물 온도가 유지되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손이 시리지 않아 동상에 걸릴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추운날



에도 손쉽게 유두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척을 시작할 때 초기 우유를 제거하면서 박테리아와 체세포도 감소되어 건강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세척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동시에 파이프라인, 텐덤, 헤링본 등 어떤 착유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우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

파우스의 이재용 대표는 우리나라 낙농업계에는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으로 낙농업계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2003년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띠는 제품은 이스라엘산 ENGS 무선발정탐지시스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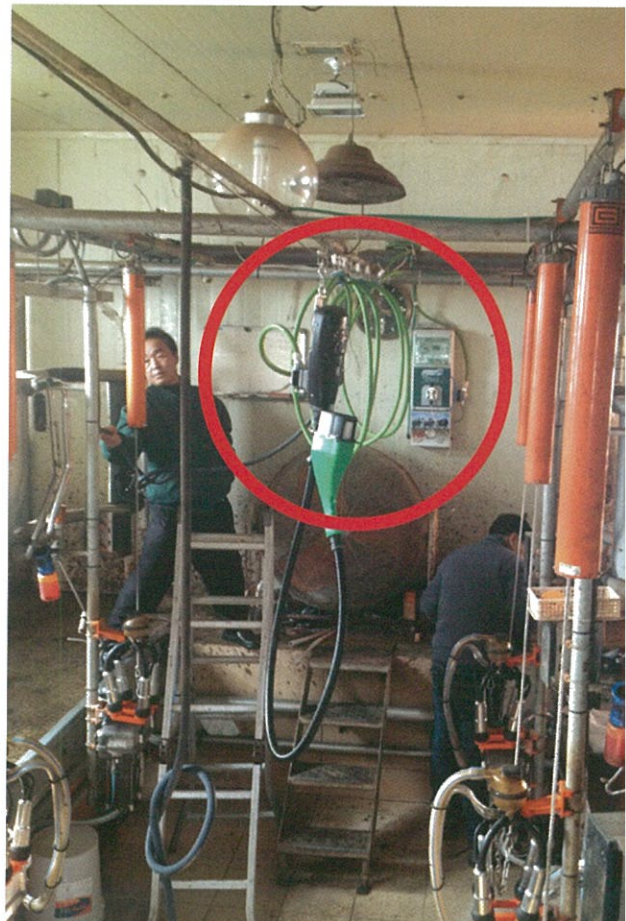
“이미 국내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착유장 안에서 시스템이 작동되는 1세대 발정탐지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선발정시스템 도입을 시도해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죠.(이 제품은 착유장 안에서 발정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5~6분 단위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발정도 잡아줘 젖소의 공태일수를 줄이고 임신성공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복장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신기술을 들여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우연히 이탈리아 박람회를 돌아보고 운명처럼 F-60 유두세척기를 알게 되면서 ‘파우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

“유두세척기를 처음 국내로 들여왔을 때는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점점 사용자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소문 마케팅에 힘입어 회사가 빠른 속도로

청원 상정목장에 설치된 유두세척기(원 안)





파우스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판매에 나선 3세대 무주입진공발생기

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1세대, 2세대에 이어 3세대 최신 무주입진공펌프의 독점 판매권까지 계약함으로써 선진기술과 신제품을 결합한 최고의 착유설비인 무주입진공발생기와 함께 공식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파우스는 낙농가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ENGS 무선발전시스템을 설치한 농가들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최첨단 시스템으로 원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품의 A/S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파우스의 제품들은 A/S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교환, 후수리’의 원칙으로 고장 난 제품을 먼저 교환해주고 수리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이재용 대표는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력상품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파우스의 첫 번째 목표이며, 그 후 농가에게 다양하고 선진화된 제품을 제공해 소량 다품목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